

# 군입대, 스타들의 터닝포인트



송중기



유아인



유승준

### 유승준 “군대 간다” 거짓말... 입국도 못해 김수현 현역 탈락에 재검 받아 현역 판정 현빈·송중기 등 군전역 후에 인기 올라

최근 유승준과 유아인으로 인해 스타의 병역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분야를 막론하고 성인 남자에게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만큼 하늘의 별인 스타들도 예외가 아니다. 달라지는 스타와 군대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다.

◇“군대 가겠다” 말 뒤집은 유승준-대가 ‘혹독’= 지난 23일 법원의 한 판결로, 이제는 ‘왕년의 가수’가 된 유승준(41)이 또다시 화제가 됐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은 인기 절정이던 2000년대 초반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가 말을 뒤집으면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그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승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 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병역기피 논란 속 골종양 발병 드러난 유아인= 지난해 12월까지 총 세 차례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던 유아인(31)은 지난 15일 골종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누명’에서 벗어났다.

유아인은 16일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자세히 밝히면서 “골종양의 비정상적인 발육이 추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병역의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의 불행이 타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문제라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힘들지만 아마도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성장하고 성취를 가져가는 배우로서의 책무로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군대 다녀오겠습니다”...현역 입대 위해 재검 받기도=연예계에도 과거에는 병역 비리가 심심치 않았다. 병역 비리에 연루돼 해외로 도피한 연예계 관계자가 10여년 넘게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최고의 스타인 싸이, 송승헌, 장혁 등도 과거 비리에 연루됐다 이후 병역의 의무를 마쳤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스타들이 재검을 받아서라도 현역 입대의 의지를 불태울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

다. ‘피해갈 구멍’이 없음을 알고 있고 ‘군대가 인기의 무덤’이라는 말도 옛말이 됐기 때문이다.

올해 입대 예정인 톱스타 김수현(29)은 처음에 신체 검사에서 현역 판정이 나오지 않자 재검을 신청해 현역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키이스트의 양근환 대표는 26일 “병역은 당연한 의무이고, 이왕 가는 거 제대로 가자는 마음에 김수현이 재검을 신청해 현역 판정을 받았다”면서 “올해 안에 영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나오면 바로 입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입대한 정일우(30)는 뇌동맥류를 앓고 있어 훈련소로부터 퇴소 권유까지 받았지만 끝까지 훈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우는 2006년 교통사고로 부상당했고, 이후 정밀검사 결과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뇌동맥류는 극심한 두통 등으로 재검 요청 시 군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평소 현역 입대를 원했던 정일우는 재검 요청을 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됐다.

앞서 현빈(35)은 ‘시크릿 가든’으로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2011년 해병대에 자원입대에 화제를 모았고, 이승기(30)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 배치돼 관심을 받았다. 서울경찰총보단에 합격한 배우 주원(29)은 경찰총보단을 포기하고 올해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다. 서인국도 3월28일 현역 입대한다. 그룹 제국의아이들 출신 방승인 광희(29)는 3월13일 입대에 군약병으로 복무한다. 지창욱(30), 이민호(30), 장근석(30) 등이 입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군 복무 후 날개 단 스타들=인기 절정일 때 군 복무를 해야한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고민을 안겨주는 일이지만, 군 복무 후 날개를 단 스타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송중기(32)는 전역 후 출연한 ‘태양의 후예’를 통해 톱스타로 도약했다. 심지어 그는 ‘태양의 후예’에서 특전사를 연기하면서 군 복무 경험을 심분 살렸다.

일찌감치 군대를 다녀온 뒤 데뷔한 류준열(31)과 박서준(29)도 같은 케이스다. 류준열은 ‘응답하라 1988’로 뜬 뒤 질주 중이고, 박서준은 ‘김비서’ ‘그녀는 예뻐다’ ‘화랑’ 등으로 상승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다.

아역 배우 출신인 유승호(24)는 몇년 뒤 입대해도 됐지만, 성인이 되자 바로 국방의 의무를 마쳤다. 아역배우 시절부터 이미 A급이었던 그가 병역의 의무까지 마치고 오자 작품 섭외가 쏟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 ‘비스트’ 전 소속사와 갈등에 개명

### “이제 하이라이트로 불러주세요”

그룹 비스트가 팀명을 ‘하이라이트’(Highlight)로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소속사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는 이전 그룹명 사용이 불가하게 돼 앞으로 윤두준, 용준형, 양요섭, 이기광, 손동운은 하이라이트라는 팀명으로 활동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이라이트는 ‘가장 밝은 부분’, ‘가장 두드러지거나 흥미 있는’이란 뜻으로 비스트가 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5인 체제로 낸 첫 번째 앨범명이기도 하다. 당초 비스트는 지난해 말 전속 계약 만료로 관련 언더어스에 새 동지를 틀면서 큐브와 팀명 사용과 관련해 논의를 거쳤다.

그러나 비스트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한 큐브는 지난 10일 비스트에서 탈퇴한 멤버 장현승을 주축으로 새로운 3인조 비스트를 결성한다고 발표해 팬들의 비난이 빚발쳤다.

어라운드어스 측은 “새로운 이름을 쓰기까지 지지 않고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하다”며 “이전 그룹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지만,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준 큐브 관계자들과 지금의 하이라이트 멤버들을 있게 해준 흥승성 회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애나 불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SBS아침연속극 <이မ် 쓰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셜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KBS 생활뉴스 40 KBC 생활뉴스
11	00 공사청렴특집 2부작 백두산	00 월화드라마 <화랑> (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전망대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토크 55 열린공간 특 Talk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방송의 진실 55 연중기획-빛고을 행복아카데미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55 닥터 365
2	45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00 키즈 사이언스6(재)	00 2시, 뉴스브리핑
3	45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55 감성애니 하루 2(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특?특! 키즈스쿨 55 내친구 마카다	00 TV블로그 토크 05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 (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오 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령전문목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할 거று기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토크 20 SBS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재보자들	55 황금주머니(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안벽의 아내>	00 월화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미니시리즈 <피고인>
11	00 KBS 뉴스라인 40 해외일각드라마 <리셀 웨폰>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초인가족 2017
12	30 101세의 프로젝트(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 24 35 스포츠 특선 MLB 핫토크	20 나이트라인 50 전국 TOP 10 가요쇼

###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0 요술 상자	20:50 세계테마기행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삼국지 삼국정립>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5:05 내 친구 아서	<천 가지 매력, 말레이시아 1부 힌두인들의 축제, 타이무섬>
06:0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5:20 우주탐험가 셋	21:3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새우볶음밥과 오징어살채볶음>	15:35 모피와 친구들	<어서와라, 봄 1부 노화도, 봄이 왔섬>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45 코코콩3	22:45 달라졌어요
07:3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21:50 EBS 다큐 프리덤
07:45 꼬마버스 타요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16:30 두다다쿵	22:45 달라졌어요
08:00 댕댕댕 유치원 1~2	12:40 세상의 모든 법칙	16:45 댕댕댕 유치원 1~2(재)	<말의 외박에는 이유가 있다>
08:30 꼬마버스 타요	12:45 세계문화기행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3:35 EBS 스페셜 프로젝트
08:45 부릉!부릉! 부릉미즈	-문학의 길을 걷다	17:45 호기심나라 오키도	-부모 고시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3:40 EBS 스페셜 프로젝트-부모고시	18:00 생방송 토크! 보내하니 1~4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9:15 용감한 소방재 레이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4:30 세계의 드라마
		19:30 EBS 뉴스	<다운튼 애비 시즌4>
		19:55 다문화 교부 열전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7일(음 2월 2일 乙酉)

子	48년생 기가 없이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이 순리이다. 60년생 철저히 이해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지리라. 72년생 폭이 넓어지고 가지 수가 점점 많아지는 단계이다. 84년생 임장이 상호 뒤 바뀔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68, 28	午	42년생 결정적인 시기가 임박하였다. 54년생 무시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 66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78년생 지금 시비를 명백하게 가려두자. 90년생 기본적인 정황을 중시해야 할 판세로다. 행운의 숫자 : 72, 44
丑	49년생 정면으로 승부를 내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61년생 돌발 사태에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할 때다. 73년생 실재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곤란하게 된다. 85년생 지연은 곧 손해를 상징하니 급히 서둘러야 실가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5, 60	未	43년생 가능성이 크다. 55년생 깊이 연관돼 있음을 감안해야겠다. 67년생 주도면밀한 인식이 명쾌한 판단으로 이어질 것이다. 79년생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살펴지 않으면 수습하기 힘들어진 다. 91년생 소용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2, 79
寅	50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62년생 물이 사방에 보이나 모두를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라. 74년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보인다. 86년생 불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즐기는 편이 훨씬 낫다. 행운의 숫자 : 34, 01	申	44년생 공리를 잘 해야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느니라. 56년생 진행 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참아야 할 일이 생긴다. 68년생 이등수가 비치니 채비하자. 80년생 하다가 조정하면 될 것이니 일단 시작 해 놓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86, 08
卯	51년생 여과가 상당하다. 63년생 재테크에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75년생 실재를 파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 방법이 보일 것이다. 87년생 귀에 거슬리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행운의 숫자 : 96, 40	酉	45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57년생 물심양 면의 상호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69년생 하나 마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느니라. 81년생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80, 62
辰	52년생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맞다. 64년생 선수를 친다면 확실히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 76년생 사소함에서 벗어나야 대의를 도모하게 되는 법이다. 88년생 부담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도다. 행운의 숫자 : 26, 69	戌	46년생 얽혀서 물은 다시 주위 담지 못한다. 58년생 목적했던 바와 상반하게 될 것이므로 잘 준비하라. 70년생 편의에 치우친다면 비능률적일 수밖에 없다. 82년생 언뜻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 지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9, 39
巳	53년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져. 65년생 누락이나 중복이 될 수도 있다. 77년생 힘들더라도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 금전면에 대박 나게 되어 있다. 89년생 재화와 연결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70	亥	47년생 미흡함을 돌이켜 본다면 훌륭한 결과를 얻으리라. 59년생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71년생 지난번에 비해서 처리하기가 매우 수월하겠다. 83년생 청산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91, 3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